

제13차 NEAR 총회 관련 언론보도 스크랩

2021.08.11.(수)

번호	구분	매체명	제목	비고
1	TV	울산 KBS	울산시, 동북아 지자체연합 '의장' 수행	
2	TV	UBC울산방송	울산시, 제14대 '동북아시아 지자체 연합 의장 맡아'	
3	네이버 TV	다경뉴스	이철우 도지사 제13차 NEAR총회 개최	
4	신문	대구일보	동북아 광역단체장 협력 위해 한자리	
5	신문	대구신문	李 지사 "동북아, 세계의 중심 거듭나자"	
6	신문	경북신문	NEAR 총회... 5개국 광역자치단체 '한자리에'	
7	신문	경안일보	"함께 문제 해결"... 동북亞 5개국 광역자치단체 한자리	
8	신문	경북연합일보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13차 총회	
9	신문	경상투데이	"공존과 번영의 동북아... 세계 중심으로"	
10	신문	세명일보	경북, NEAR 제13차 총회 개최	
11	신문	경북일일신문	동북아시아 5개국 72개 광역자치단체 한자리에	
12	신문	일간경북신문	동북아 5개국 '미래 청사진' 선언문 발표	
13	신문	영남매일	동북아 5개국 72개 광역자치단체 한자리에 포항서 '13회 NEAR 총회'	
14	신문	영남경제신문	경북도 "세계의 중심, 공존·번영의 동북아를 만들자"	
15	신문	세계일보	울산 '동북아 지역자치단체연합' 이끈다	
16	신문	경상일보	울산시, 2년간 14대 NEAR(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의장 맡아	
17	신문	한겨레	울산, 2년간 동북아 지역자치단체연합 의장 맡아	
18	신문	국민일보	울산시 2년간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이끌어 간다	
19	신문	아주경제	울산시, '동북아 5개국 73개 지자체 2년간 이끈다'	
20	신문	서울경제	울산시,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의장 단체' 수임	
21	신문	울산매일신문	울산시, 제14대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의장 단체' 수임	

22	신문	울산제일일보	울산, 동북아 지방정부 교류·협력 이끈다	
23	신문	울산저널	울산시, 동북아시아자치단체 리더 역할 수행	
24	인터넷	연합뉴스	울산시, 제14대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의장 맡아	
25	인터넷	이뉴스투데이	제14대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울산시 '의장 단체' 수임	
26	인터넷	더코리아	제14대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울산시 '의장 단체' 수임	
27	인터넷	울산뉴스투데이	제14대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울산시 '의장 단체' 수임	
28	인터넷	영주신문	동북아5개국 72개 광역자치단체 한자리에	
29	인터넷	구미뉴스	경북도,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 제13차 총회	
30	인터넷	경북인터넷뉴스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 제13차 총회 개최	
31	인터넷	브레이크뉴스	경상북도,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 제13차 총회 개최	
32	인터넷	뉴스웍스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제13차 총회... 포항 사무국서 온라인 개최	
33	인터넷	BBS NEWS	포항에서 온라인으로 동북아시아 5개국 72개 광역자치단체 한자리에	
34	인터넷	경남에나뉴스	경북도, 동북아시아 5개국 72개 광역자치단체 한자리에	
35	인터넷	케이에스피뉴스	경북도, 동북아시아 5개국 72개 광역자치단체 한자리에	
36	인터넷	CBN뉴스	경상북도, 동북아시아 5개국 72개 광역자치단체 한자리에	
37	인터넷	프라임경북뉴스	경상북도, 동북아시아 5개국 72개 광역자치단체 한자리에	
38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동북아 리더된 울산시, NEAR 제14대 의장단체에 선정	
39	인터넷	아시아경제	울산시 '동북아 지방정부 UN' 자치단체연합 의장에 올라	
40	인터넷	뉴시스	울산시, 동북아자치단체 제14대 의장 맡아 리더 역할 수행	
41	인터넷	CNB뉴스	제14대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울산시 '의장 단체' 수임	
42	인터넷	국제i저널	경상북도,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 제13차 총회 개최	
43	통신사	NSP통신	경북도,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 제13차 총회 개최	
44	인터넷	대한뉴스	제14대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울산시 '의장 단체' 수임	
45	인터넷	YTN	울산, '동북아시아 지역자치단체연합' 의장 단체 맡아	
46	인터넷	김천방송	동북아시아 5개국 72개 광역자치단체 한자리에	

KBS NEWS

울산시, 동북아 지자체연합 '의장' 수행

입력 2021-08-11 07:49:28 수정 2021-08-11 08:04:14

뉴스광장(울산)



울산시가 동북아시아 지방자치단체연합 의장을 맡아 앞으로 2년 동안 동북아 지역의 국제 교류를 이끌게 됩니다.

울산시는 동북아 5개 나라 73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동북아 지자체연합 총회에서 의장단체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내년에 있을 실무위원회와 2023년 총회 개최 준비에 나서는 한편, 이를 계기로 울산의 경제, 과학, 문화 등 도시 홍보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이이슬 기자 eslee31@kbs.co.kr
이이슬 기자의 기사 모음

저작권자 © KBS 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LATEST POST 2021/08/11 ubc모닝와이드



TV

라디오

뉴스

특집

공연/행사

시청자참여

SEARCH

울산시, 제14대 '동북아시아 지자체 연합 의장 맡아'

by admin



RELATED POST

2분기 소매 판매 전국 최대 '감소'

울산시 영포산터널 통행료 동구민에 지원 검토 중

강동관광단지, 생활형 숙박시설에 중점

울산수학문화관 개관..가상체험도 가능

구름 많은 날씨..곳에 따라 5~40mm 소나기



편성표

프라임뉴스

모닝와이드

시리즈_스타트업창업

시리즈_반구대암각화

뉴스VOD

뉴스기사컨텐츠

뉴스기사 검색

뉴스 제보 안내

날짜별 영상/뉴스기사 검색

울산시가 오늘(10)
동북아 5개국, 73개 지자체가
참가한 가운데 열린
'제13차 동북아시아
지역자치단체 연합'
온라인 총회에서
제14대 의장에 선출됐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2022년 실무위원회와
2023년 총회 개최 등
동북아시아 자치단체의
리더 역할을 수행합니다

동북아 유엔으로 불리는
동북아시아 지역자치단체연합은 지난 1996년 한·중·일·러
4개국 29개 광역지자체가
참가해 창설한 동북아
지방정부 간
다자 교류 플랫폼입니다 @@

*2021/08/10 조윤호 작성

Posted in 뉴스기사

8월 2021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7월

특집

2021/07/17 2021 울주장사씨름대회 (클릭!)



2021/07/11 ubc토크콘서트 행복한 문화도시 울산의 꿈 (클릭!)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홈

인기영상

라이브

MY

최근 본 영상

나중에 볼 영상

좋아요 한 영상

구독

관심있는 채널을 구독하여
업데이트 동영상을 받아보세요

채널 탐색하기

테마

스타일TV 공연전시

뮤직N 클래스

영화 웹드라마TV

웹예능TV 패션뷰티TV

쥬니버TV 게임TV

푸드TV 창업

더보기

방송관

시간순삭 경주행

후원하기

프게이리

다경tv 구독 29명



이철우 도지사 제13차 NEAR총회 개최 2021-08-10

재생수 3 2021.08.10.

신고

1

0

나중에 보기

공유

#이철우도지사 #경상북도 #다경뉴스 #다경tv

경북도, 동북아자치 단체 연합 제13차 총회 개최
동북아시아 5개국 72개 광역자치단체 한자리에

경상북도는 10일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5개국의 광역자치단체장 등 대표 7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3차 동북 아시아지역 자치단체 연합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2년마다 자체단체장 급이 참가해 개최되는 NEAR 총회는 올해 연합 사무국이 위치한 포항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개막식에서 의장단체인 타라센코 안드레이 러시아 사하공화국 총리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이철우 경상북도 지사의 축사, 반기문 전(前) 유엔사무총장과 미치기미 히사시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 사무총장의 외빈축사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총회는 울산광역시와 차기 의장단체 선출과 중국 라오닝성 회원가입(79번째) 신청 안건을 심의한 후 최근 해양어업, 환경, 방재,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 활동결과를 공유하고 동북아 지방정부가 당면한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으며 동북아의 미래 청사진을 담은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총회를 준비한 김옥재 NEAR 사무총장은 "이번 회의에 지사급 33명이 참석함으로써 창립 후 25년을 이어온 NEAR 회원단체의 결속력을 보여줬으며, 이를 바탕으로 회원단체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NEAR 창설 25주년을 축하하며, 세계가 코로나-19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기후, 환경, 보건 등 인류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호 이해와 실질적 협력을 넓혀 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NEAR가 다자간 협력을 선도해서 공존과 번영의 동북아를 만들어 세계의 중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1996년 9월 경주 개최된 동북아시아 지역 자치단체 회의에서 창립된 NEAR는 현재 동북아 6개국 79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회원으로 가입해 다자간 국제교류와 협력을 추진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중앙 정부 간 대립과 갈등을 뛰어 넘어 지방정부 간 교류 확대를 통해 동북아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함께 볼 만한

1 / 10



Eonseok Do님을 위한 추천 동영상



티빙 환승연애 [선공개] 사귀는 때 서로 애칭이 뭐였는지 기억해? 3주 리빙(TVING)

지금 또는

'프리 가이' 라이언 레놀즈&조디 코머 환상의 티키타카 그리팅 영상
네이버 영화 예고편 저장소

지금 또는



[영상] 2020 도쿄올림픽 폐막식④ 도쿄에서 파리로...다음 올림픽은 <BS뉴스

996 2 2일 전



진주문화원, '진주성 전투기집성(鎭州城 戰鬪記集成)' 번역본 출간 / SDA TV 신동아방송경남

213 4 1개월 전

동북아 광역단체장 협력 위해 한자리

경북도는 10일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5개국의 광역자치단체장 등 대표 7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3차 동북아시아지역 자치단체연합(NEAR) 총회를 개최했다.

2년마다 광역단체장 급이 참가해 개최되는 NEAR 총회는 올해 연합사무국이 위치한 포항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이날 개막식에서 의장단체인 타라센코 안드레이 러시아 사하공화국 총리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이철우 경북도 지사의 축사,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과 미치가미 히사시 등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의 축사가 이어졌다.

이번 총회는 울산시의 차기 의장단체 선출과 중국 랴오닝성 회원가입(79번째) 신청 안건을 심의한 후 최근 해양어업, 환경, 방재,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 활동 결과를 공유했다. 또 동북아 지방정부가 당면한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동북아 미래 청사진을 담은 선언문을 발표했다.

김옥채 NEAR 사무총장은 “이번 회의에 지사급 33명이 참석해 창립 후 25년을 이어온 NEAR 회원단체의 결속력을 보여줬다”며 “이를 바탕으로 회원단체의 적극적인 동



제13차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총회가 10일 포항에서 온라인으로 열렸다. 사진은 이철우 경북도 지사가 축사를 하는 모습.

경북도, 5개국 72명 참여 NEAR 온라인 총회 진행 중 랴오닝성 가입신청 안건 심의 등 청사진 선언도

참과 협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 지사는 “코로나19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도 기후, 환경, 보건 등 인류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호 이해와 실질적 협력을 넓혀 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NEAR가 다자 간 협력을 선도해서 공존과 번영의 동북아를 만들어 세계의 중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1996년 9월 경주에서 개최된 동북아시아 지역 자치단체 회의에서 창립된 NEAR은 현재 동북아 6개국 79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회원으로 가입해 다자간 국제교류와 협력을 추진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중앙 정부 간 대립과 갈등을 뛰어넘어 지방정부 간 교류 확대를 통해 동북아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김창원 기자

李 지사 “동북아, 세계의 중심 거듭나자”

동북아시아자치단체연합 총회
한중일 등 5개국 대표 72명 참석
지방정부 교류·공동발전 도모

경북도는 10일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5개국의 광역자치단체장 등 대표 7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3차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 총회를 개최했다.

2년마다 자치단체장 급이 참가해 개최되는 NEAR 총회는 올해 연합 사무

국이 위치한 포항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이날 개막식에서 의장단체인 타라센코 안드레이 러시아 사하공화국 총리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이철우 경북도 지사의 축사,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과 미치가미 히사시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TCS: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사무총장의 외빈축사가 이어졌다.

이번 총회는 울산광역시의 차기 의장단체 선출과 중국 랴오닝성 회원가입(79번째) 신청 안건을 심의한 후 최근 해양

어업, 환경, 방재,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 활동결과를 공유하고 동북아 지방정부가 당면한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으며 동북아의 미래 청사진을 담은 ‘선언문’을 발표했다.

총회를 준비한 김옥채 NEAR 사무총장은 “이번 회의에 지사급 33명이 참석함으로써 창립 후 25년을 이어온 NEAR 회원단체의 결속력을 보여줬으며, 이를 바탕으로 회원단체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철우 경북도 지사는 “NEAR가 다자

간 협력을 선도해서 공존과 번영의 동북아를 만들어 세계의 중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1996년 9월 경주 개최된 동북아시아 지역 자치단체 회의에서 창립된 NEAR은 현재 동북아 6개국 79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회원으로 가입해 다자간 국제교류와 협력을 추진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중앙 정부 간 대립과 갈등을 뛰어넘어 지방정부 간 교류 확대를 통해 동북아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NEAR 총회... 5개국 광역자치단체 '한자리에'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경북도, 포항서 온라인 '진행'
한국·중국·일본·몽골·러시아
5개국 광역자치단체장 72명
분과위원회 활동결과를 공유
지방정부 당면 과제 의견 교환
미래 청사진 담은 선언문 발표

경북도가 10일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5개국의 광역자치단체장 등 대표 7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3차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총회를 개최했다.

2년마다 자체단체장 급이 참가해 개최되는 NEAR 총회는 올해 연합 사무국이 위치한 포항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이날 개막식에서 의장단체인 타라센코 안드레이 러시아 사하공화국 총리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축사, 반기문 전(前) 유엔사무총장과 미치카미 히사시 한중일3국 협력사무국 사무총장의 외빈축사가 이어졌다.

이번 총회는 울산광역시의 차기 의장단체 선출과 중국 라오닝성 회원가입(79번째) 신청 안건을 심의한 후 최근 해양어업, 환경, 방재,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 활동결과를 공유하고 동북아 지방정부가 당면한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으며 동북아의 미래 청사진을 담은 '선언문'을 발표했다.



총회를 준비한 김옥채 NEAR사무총장은 "이번 회의에 지사급 33명이 참석함으로써 창립 후 25년을 이어온 NEAR 회원단체의 결속력을 보여줬으며, 이를 바탕으로 회원단체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NEAR 창설 25주년을 축하하며, 세계가 코로나-19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기후, 환경, 보건 등 인류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상호 이해와 실질적 협력을 넓혀 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NEAR가 다자간 협력을 선도해서 공존과 번영의 동북아를 만들어 세계의 중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1996년 9월 경주에서 개최된 동

북아시아 지역 자치단체 회의에서 창립된 NEAR는 현재 동북아 6개국 79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회원으로 가입해 다자간 국제교류와 협력을 추진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중앙 정부 간 대립과 갈등을 뛰어 넘어 지방정부 간 교류 확대를 통해 동북아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서인교 기자

“함께 문제 해결”... 동북亞 5개국 광역자치단체 한자리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제13차 총회 성공적 개최
울산시 차기 의장단체 선출 심의
인류 당면 과제 해결 의견 교환

경북도는 10일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5개국의 광역자치단체장 등 대표 7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3차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 총회를 개최했다.

2년마다 자체단체장 급이 참가해 개최되는 NEAR 총회는 올해 연합 사무국이 위치한 포항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이날 개막에 이어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축하, 권기봉 (전)1 유엔사무총장과 미치 가미 히사시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TCS: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사무총장의 외빈축사가 이어졌다.

이번 총회는 울산시의 차기 의장단체 선출과 중국 라오닝성 회원가입(79번째) 신청 안건을 심의한 후 최근 해양어업, 환경, 방재,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 활동결과를 공유하고 동북아 지방정부가 당면한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으며 동북아의 미래 청사진을 담은 '선언문'을 채택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NEAR 창설 25주년을 축하하며, 세계가 코로나19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기후, 환경, 보건 등 인류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호 이해와 실질적 협력을 넓혀 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NEAR이 다자간 협력을 선도해서 공



포항에서의 공존과 번영을 위한 동북아 5개국 광역자치단체장 72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13차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총회가 10일 포항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축사를 하고 있다.

존과 번영의 동북아를 만들어 세계의 중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1996년 4월 경주 제천역 동북아시아 지역 자치단체 회관에서 창립된 NEAR는 현재 동북아 5개국 28개 광역자치단체가 회원으로 가입해

다자간 국제교류의 협력을 추진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경안일보 간 대입과 김동원 기자가 넘어 지방정부 간 교류 확대를 통해 동북아 공동번영을 도모하고 있다.

김동원 기자 gk7990@kjin.com

경북연합일보

2021년 08월 11일 수요일 003면 경북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13차 총회

한국, 중국, 일본 등 5개국
광역자치단체 대표 한자리
지방정부 당면 과제 논의

경북도는 10일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5개국의 광역자치단체장 등 대표 7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3차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 총회를 개최했다.

2년마다 자체단체장 급이 참가해 개최되는 NEAR 총회는 올해 연합 사무국이 위치한 포항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이날 개막식에서 의장단체인 타라센코 안드레이 러시아 사하 공화국 총리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축하, 반기문 전(前) 유엔사무총장과 미치 가미 히사시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TCS: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사무총장의 외빈축사가 이어졌다.



10일 포항에서 제13차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총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이번 총회는 울산광역시의 차기 의장단체 선출과 중국 라오닝성 회원가입(79번째) 신청 안건을 심의한 후 최근 해양어업, 환경, 방재,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 활동결과를 공유하고 동북아 지방정부가 당면한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으며 동북아의 미래 청사진을 담은 '선언문'을 발표했다.

총회를 준비한 김옥채 NEAR 사무총장은 "이번 회의에 지사급 33명이 참석함으로써 창립 후 25년을 이어온 NEAR 회원단체의 결속력을 보여줬으며, 이를 바탕으로 회원단체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NEAR 창

설 25주년을 축하하며, 세계가 코로나19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인류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호 이해와 실질적 협력을 넓혀 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NEAR이 다자간 협력을 선도해서 공존과 번영의 동북아를 만들어 세계의 중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영철 기자

“공존과 번영의 동북아… 세계 중심으로”

포항서 온라인으로 NEAR 총회 미래 청사진 담은 '선언문' 발표

경북도는 10일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5개국의 광역자치단체장 등 대표 7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3차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 총회를 개최했다.

2년마다 자제단체장 급이 참가해 개최되는 NEAR 총회는 올해 연합 사무국이 위치한 포항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이날 개막식에서 의장단체인 타라센코 안드레이 러시아 사하공화국 총리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이철우 도지사의 축사, 반기문 전(前) 유엔사무총장과 미치가미 히사시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TCS: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사무총장의 외빈축사가 이어졌다.

이번 총회는 울산시의 차기 의장단체 선출과 중국 랴오닝성 회원가입(79

번째) 신청 안건을 심의한 후 최근 해양어업, 환경, 방재,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 활동결과를 공유하고 동북아 지방정부가 당면한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으며 동북아의 미래 청사진을 담은 '선언문'을 발표했다.

총회를 준비한 김옥채 NEAR 사무총장은 “이번 회의에 지사급 33명이 참석함으로써 창립 후 25년을 이어온 NEAR 회원단체의 결속력을 보여줬으며 이를 바탕으로 회원단체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NEAR 창설 25주년을 축하하며 세계가 코로나19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기후, 환경, 보건 등 인류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호 이해와 실질적 협력을 넓혀 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NEAR가 다자간 협력을 선도해서 공존과 번영의 동북아를 만들어 세계의 중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영우 기자 ycyw57@naver.com

경북, NEAR 제13차 총회 개최

경북도는 10일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5개국의 광역자치단체장 등 대표 7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3차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 총회를 개최했다.

2년마다 자체단체장 급이 참가해 개최되는 NEAR 총회는 올해 연합 사무국이 위치한 포항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이날 개막식에서 의장단체인 타라센코 안드레이 러시아 사하공화국 총리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이철우 지사의 축사, 반기문 前유엔사무총장과 미치기미 히사시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TCS: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사무총장의 외빈축사가 이어졌다.

이번 총회는 울산광역시의 차기 의장단체 선출과 중국 랴오닝성 회원가입(79번째) 신청 안건을 심의한 후 최근 해양어업, 환경, 방재, 경제·인문교

류 분과위원회 활동결과를 공유하고 동북아 지방정부가 당면한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으며 동북아의 미래 청사진을 담은 '선언문'을 발표했다.

총회를 준비한 김옥채 NEAR 사무총장은 "이번 회의에 지사급 33명이 참석함으로써 창립 후 25년을 이어온 NEAR 회원단체의 결속력을 보여줬으며, 이를 바탕으로 회원단체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철우 지사는 "NEAR 창설 25주년을 축하하며, 세계가 코로나19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기후, 환경, 보건 등 인류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호 이해와 실질적 협력을 넓혀 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NEAR가 다자간 협력을 선도해서 공존과 번영의 동북아를 만들어 세계의 중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용진 기자

경북일일신문

2021년 08월 11일 수요일 002면 경북

동북아시아 5개국 72개 광역자치단체 한자리에

경북도는 10일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5개국의 광역자치단체장 등 대표 7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3차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 총회를 개최했다.

2년마다 자체단체장 급이 참가해 개최되는 NEAR 총회는 올해 연합 사무국이 위치한 포항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이날 개막식에서 의장단체인 타라센코 안드레이 러시아 사하공화국 총

리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의 축사, 반기문 전(前) 유엔사무총장과 미치기미 히사시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TCS: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사무총장의 외빈축사가 이어졌다.

이번 총회는 울산광역시의 차기 의장단체 선출과 중국 랴오닝성 회원가입(79번째) 신청 안건을 심의한 후 최근 해양어업, 환경, 방재,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 활동결과를 공유하고 동북아 지방정부가 당면한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으며 동

북아의 미래 청사진을 담은 '선언문'을 발표했다.

총회를 준비한 김옥채 NEAR 사무총장은 "이번 회의에 지사급 33명이 참석함으로써 창립 후 25년을 이어온 NEAR 회원단체의 결속력을 보여줬으며, 이를 바탕으로 회원단체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NEAR 창설 25주년을 축하하며, 세계가 코로나-19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기후, 환경, 보건 등 인류공

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호 이해와 실질적 협력을 넓혀 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NEAR가 다자간 협력을 선도해서 공존과 번영의 동북아를 만들어 세계의 중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1996년 9월 경주 개최된 동북아시아 지역 자치단체 회의에서 창립된 NEAR는 현재 동북아 6개국 79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회원으로 가입해 다자간 국제교류와 협력을 추진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중앙정부 간 대립과 갈등을 뛰어 넘어 지방정부 간 교류 확대를 통해 동북아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동북아 5개국 '미래 청사진' 선언문 발표

NEAR 13차 총회 개최

경북도, 포항서 온라인 진행
72개 광역자치단체 한자리에

경북도가 10일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5개국의 광역자치단체장 등 대표 7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3차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 총회'를 개최했다.

2년마다 자체단체장 급이 참가해 개최되는 NEAR 총회는 올해 연합 사무국이 위치한 포항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이날 개막식에서 의장단체인 타라센코 안드레이 러시아 사하공화국 총리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이철우 경북도**



10일 포항에서 제13차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총회가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외빈축사를 하고 있다.

지사의 축사, 반기문 전(前) 유엔사무총장과 미치카미 히사시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TCS: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사무총장의 외빈축사가 이어졌다.

총회는 울산광역시의 차기 의장단체 선출과 중국 랴오닝성 회원가입(79번

째) 신청 안건을 심의한 후 최근 해양어업, 환경, 방재,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 활동결과를 공유하고 동북아 지방정부가 당면한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으며, 동북아의 미래 청사진을 담은 '선언문'을 발표했다.

총회를 준비한 김옥채 NEAR 사무

총장은 "이번 회의에 지사급 33명이 참석함으로써 창립 후 25년을 이어온 NEAR 회원단체의 결속력을 보여줬으며, 이를 바탕으로 회원단체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이철우** 지사는 "NEAR 창설 25주년을 축하하며, 세계가 코로나19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기후, 환경, 보건 등 인류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호 이해와 실질적 협력을 넓혀 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NEAR가 다자간 협력을 선도해서 공존과 번영의 동북아를 만들어 세계의 중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1996년 9월 경주 개최된 동북아시아 지역 자치단체 회의에서 창립된 NEAR는 현재 동북아 6개국 79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회원으로 가입해 다자간 국제교류와 협력을 추진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중앙 정부 간 대립과 갈등을 뛰어 넘어 지방정부 간 교류 확대를 통해 동북아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종팔기자

동북아 5개국 72개 광역자치단체 한자리에 포항서 '13회 NEAR 총회'

울산시 차기 의장단체 선출·중랴오닝성 회원가입 심의

해양어업·환경·방재·경제 인문교류 분과위 활동 공유

경북도는 10일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5개국의 광역자치단체장 등 대표 7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3차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 총회를 개최했다.

2년마다 자체단체장 급이 참가해 개최되는 NEAR 총회는 올해 연합사무국이 위치한 포항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이날 개막식에서 의장단체인 타라센코 안드레이 러시아 사하공화국 총리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이철우 경북도 지사의 축사, 반기문 전(前) 유엔사무총장과 미치가미 히사시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TCS: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사무총장의 외빈축사가 이어졌다.

이번 총회는 울산광역시의 차기 의장단체 선출과 중국 랴오닝성 회원가입(79번째) 신청 안건을 심의한 후 최근 해양어업, 환경, 방재,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 활동결과를 공유하고 동북아 지방정부가 당면한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으며 동북아의 미래 청사진을 담은 '선언문'을 발표했다.

총회를 준비한 김옥채 NEAR 사무총장은 "이번 회의에 지사급 33명이 참석함으로써 창립 후 25년을 이어온 NEAR 회원단체의 결속력을 보여줬으며, 이를 바탕으로 회원단체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철우 경북도 지사는 "NEAR 창설 25주년을 축하하며, 세계가 코로나-19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기후, 환경, 보건 등 인류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호 이해와 실질적 협력을 넓혀 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NEAR가 다자간 협력을 선도해서 공존과 번영의 동북아를 만들어 세계의 중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1996년 9월 경주 개최된 동북아시아 지역 자치단체 회의에서 창립된 NEAR는 현재 동북아 6개국 79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회원으로 가입해 다자간 국제교류와 협력을 추진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중앙 정부 간 대립과 갈등을 뛰어 넘어 지방정부 간 교류 확대를 통해 동북아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엄용대 기자 aquapro1@naver.com

경북도 “세계의 중심, 공존·번영의 동북아를 만들자”

포항서 제13차 NEAR 총회 개최
해양업·환경 등 활동 결과 보고
지방 정부 당면 과제 의견 공유

경북도는 10일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5개국의 광역자치단체장 등 대표 7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3차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 총회를 개최했다.

2년마다 자제단체장 급이 참가해 개최되는 NEAR 총회는 올해 연합 사무국이 위치한 포항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이날 개막식에서 의장단체인 타라센코 안드레이 러시아 사하공화국 총리의 환영

사를 시작으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의 축사, 반기문 전(前) 유엔사무총장과 미치카미 히사시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TCS: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사무총장의 외빈축사가 이어졌다.

이번 총회는 울산광역시의 차기 의장단체 선출과 중국 랴오닝성 회원가입(79번째) 신청 안건을 심의한 후 최근 해양어업, 환경, 방재,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 활동결과를 공유하고 동북아 지방정부가 당면한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으며 동북아의 미래 청사진을 담은 ‘선언문’을 발표했다.

총회를 준비한 김옥재 NEAR 사무총장은 “이번 회의에 지사급 33명이 참석함으로써 창립 후 25년을 이어온 NEAR 회원단체의 결속력을 보여줬으며, 이를 바탕으로



경북도는 5개국의 광역자치단체장 등 대표 7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3차 NEAR 총회를 개최했다

으로 회원단체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NEAR 창설 25주년을 축하하며, 세계가 코로나-19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기후, 환경, 보건 등 인류공동의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상호 이해와 실질적 협력을 넓혀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NEAR가 다자간 협력을 선도해서 공존과 번영의 동북아를 만들어 세계의 중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신윤 기자 max0709@hanmail.net

전국

8 월

뉴스 이슈 비즈 연예 스포츠 포토/영상 오피니언 WORLD SUMMIT 세계평화언론대회 환경 드론



운동 없이 묵힌 지방이 빠진다? 배우 소유 진도 하는 '이것'



주식할때 '3가지'기억하면 '큰돈'번다

울산 '동북아 지역자치단체연합' 이끈다

입력 : 2021-08-11 01:05:00 수정 : 2021-08-10 19:02:05

14대 의장단체로 만장일치 승인

울산시가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의 의장단체가 됐다.

10일 울산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제13대 의장단체인 러시아 사하공화국 주관으로 열린 '제13차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온라인 총회에서 울산시의 제14대 의장단체 수임이 만장일치로 승인됐다. 이날 총회에는 동북아 5개국 73개 지방자치단체 시도지사 등 대표자 등 250명이 참석했다.

울산시는 앞으로 2년간 제14대 NEAR 의장으로서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국제교류와 협력을 이끌어 가게 된다. 내년엔 실무위원회와 2023년 총회도 개최한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의장단체 수락 연설을 통해 "광범위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동북아시아지방정부가 세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미래 경쟁력을 선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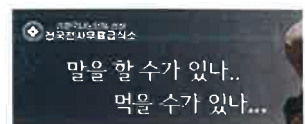
시는 의장단체 수행에 따라 울산의 도시브랜드 위상을 제고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 동반 성장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NEAR는 1996년 한·중·일·러 4개국 29개 광역지자체가 참가해 창설한 동북아 지방정부 간 다자 교류 플랫폼으로, '동북아 지방정부의 유엔'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카뱅' 다음에 투자자 물리는 '이것' 상한가 포착... 레플리카 '수입명품' 창고방출, 90% 노마진 땀... 이번주 로또1등 예상당첨번호 무료공개 7,13,22... 월3000만원 벌고 싶으면 '이 자격증'만 따면 된다... 월3000만원 버는 '이 자격증' 지원자 물려든다! 연예인 '명품레플리카' 90% 가격 '폭탄' 땀처리!



이 시각 주요뉴스



"성관계 거부하자 순간 너무 짜증" 일주일 된 여성 살해한 40대에 무기 구형

티파니 외출복 알고 보니 수영복... 버버 '고래 잡으러 가는' 남자 아이 예전보다 '호텔 갔지만 관계는 안 해' 의사 형부! 스텔스기 반대 일당, 北 지령 10차례 본 사업가 남편 둔 이시영, 프라다 온몸에 조현, 사진 4장으로 보는 파격 레깅스!

경상일보

HOME > 사회 > 울산

울산시, 2년간 14대 NEAR(동북아시아 지역자치단체연합) 의장 맡아

✎ 이춘봉 | ㉠ 승인 2021.08.11 00:10 | 2면

동북아 79개 지자체 단체연합
내년 실무위·2023년 총회 개최



▲ 송철호 울산시장이 10일 동북아 5개국 73개 지자체의 시도지사 등이 참가한 가운데 제13대 의장 단체인 러시아 사하공화국 주관으로 개최된 '제13차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온라인 총회'에서 울산시의 제14대 의장단체 수임에 따른 인사말을 하고 있다. 울산시 제공

울산시가 동북아 6개국 79개 광역지자체가 가입된 단체의 의장을 맡아 향후 2년 동안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국제 교류와 협력을 주도한다.

시는 10일 동북아 5개국 73개 지자체 시도지사 등 대표자가 참가한 가운데 열린 제13차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

이하 NEAR) 온라인 총회에서 제14대 의장단체 수임을 만장일치로 승인받았다.

NEAR는 지난 1996년 한·중·일·러 4개국 29개 광역지자체가 참가해 창설한 동북아 지방 정부 간 다자 교류 플랫폼이다. 2005년 몽골과 북한이 회원으로 가입함에 따라 현재 회원은 동북아 6개국 79개 광역지자체로 확대됐다.

조직은 총회, 실무위원회, 17개 분과위원회, 사무국 등으로 구성돼 있다.

NEAR는 동북아 지자체간의 행정·경제·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의 교류협력 증진 및 공동 발전 도모는 물론 세계 평화 증진에 기여한다는 창설 목적에 따라 '동북아 지방정부 간 유엔'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의장단체 수임으로 시는 제14대 NEAR 의장단체를 맡으면서 2022년 실무위원회와 2023년 총회를 개최하게 된다. 시는 의장단체를 맡게 됨에 따라 향후 울산의 도시 브랜드 위상 제고 및 경제·통상, 교육·과학,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과 동반 성장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의장단체 수락 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산업수도 울산을 소개하면서 "광범위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동북아시아지방정부가 글로벌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미래 경쟁력을 선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NEAR 청소년 그림·포스터 공모전이 지난 4월부터 진행 중에 있다. 역대 공모전 수상작은 9월7일부터 17일까지 울산도서관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이춘봉 bong@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영남

울산, 2년간 동북아 지역자치단체연합 의장 맡아

등록:2021-08-10 15:50 수정:2021-08-10 15:52



울산이 동북아시아 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의장을 맡았다.

울산시는 10일 오후 3시 경북 포항시 포스코 국제관에서 동북아시아 5개국 73개 자치단체 시장과 도지사 등 대표자가 참여한 제13차 동북아시아 지역자치단체연합 온라인 총회에서 울산시의 제14대 의장단체 수임을 만장일치 승인했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앞으로 2년 동안 동북아시아 지역자치단체연합 의장단체로서 동북아 지방정부 국제교류와 협력을 이끌며 내년 실무위원회와 2023년 총회를 유치하게 됐다. 제13대 의장단체는 러시아 사하공화국이 맡았다.

울산시는 동북아시아 지역자치단체연합 의장단체를 맡으면 울산의 국제적인 도시 위상을 높이고, 경제·통상·교육·과학·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과 동반 성장의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의장단체 수락연설을 통해 “동북아시아 지방정부가 세계(글로벌)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미래 경쟁력을 선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다음 총회에선 모든 회원단체가 한 곳에 모여 미래 발전방향과 그간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동북아시아 지역자치단체연합은 1996년 9월 경북 경주시에서 한·중·일·러 4개국 29개 광역자치단체가 참가해 창설했다. 동북아시아 지방정부 다자 교류 플랫폼으로, ‘동북아시아 지방정부 유엔’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뒤에 몽골과 북한이 추가돼 현재 전체 회원단체는 6개국 79개 광역자치단체로 늘었다. 사무국은 경북 포항시에 있다. 국내에선 서울을 뺀 16개 광역자치단체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울산은 2008년 9월 가입했다.

울산시 2년간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이끌어 간다

입력 2021-08-10 13:11

울산시가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 NEAR)의 의장을 맡아 앞으로 2년간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국제교류와 협력을 이끌어 나간다.

시에 따르면 10일 오후 제13대 의장단체인 러시아 사하공화국 주관으로 개최된 '제13차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온라인 총회'에서 울산시의 제14대 의장단체 수임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제14대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의장단체를 맡아, 2022년 실무위원회와 2023년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향후 울산의 도시브랜드 위상 제고 및 경제·통상, 교육·과학,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 동반 성장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의장단체 수락 연설을 통해 " 광범위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동북아시아지방정부가 세계(글로벌)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미래 경쟁력을 선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은 1996년 한·중·일·러 4개국 29개 광역지자체(현재 회원 동북아 6개국 79개 광역지자체)가 참가해 창설한 동북아 지방정부 간 다자 교류 플랫폼이다. 조직은 총회(의장), 실무위원회(위원장), 분과위원회(17개), 사무국(사무총장 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울산시는 지난 2008년에 가입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COPYRIGHT BY KUKMINILBO ALL RIGHTS RESERVED.

아주경제

인쇄하기

닫기

울산시, '동북아 5개국 73개 지자체 2년간 이끈다'

송철호 시장, '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 신설 적극 지원키로

(울산) 정종우 기자 (jjw@ajunews.com) | 입력 : 2021-08-10 05:44 | 수정 : 2021-08-10 05:44



울산시는 10일 '제13차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온라인 총회'에서 제14대 의장단체를 수임했다. 사진은 울산대교. [사진=울산시 제공]

울산시가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의 의장을 맡아 앞으로 2년간 동북아 지방정부간 국제교류와 협력을 이끌어 간다.

10일 울산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동북아 5개국 73개 지자체의 시도지사 등 대표자가 참가한 가운데 제13대 의장단체인 러시아 사하공화국 주관으로 개최된 '제13차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온라인 총회'에서 울산시의 제14대 의장단체 수임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제14대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의장단체를 맡아 2022년 실무위원회와 2023년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의장단체 수락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산업수도로서의 울산을 소개하고, "광범위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동북아시아지방정부가 세계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미래 경쟁력을 선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은 지난 1996년 한·중·일·러 4개국 29개 광역지자체(현재 회원 동북아 6개국 79개 광역지자체)가 참가해 창설한 동북아 지방정부 간 다자 교류 플랫폼으로, '동북아 지방정부간 UN'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김창기 부산지방국세청장은 10일 울산시청을 방문, 송철호 울산시장과 환담을 나눴다.

김 청장은 이날 "울산시와 울주군 관계 공무원들이 국세청, 행정안전부 등 관련기관을 수차례 방문하는 등 발로 뛰는 적극 행정으로 울주지서 신설이 행정안전부 심사를 무사히 통과하게 됐다"며 감사를 전했다.

이에 송철호 시장은 "앞으로 기획재정부와 국회 예산심의도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 신설은 울주군 서부권(범서, 언양, 상북, 두동, 두서, 삼남, 삼동) 주민들의 관할세무서 원거리 위치에 따른 불편을 해소해 국세행정 서비스를 개선하고, 울산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조성 및 도시개발 가속화로 국세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요구해왔던 현안이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14일 행정안전부 심사를 통과했고 현재 기획재정부와 국회 예산심의를 앞두고 있다.

한편, 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가 신설되면 울주군 언양읍, 범서읍, 두동면, 두서면, 상북면, 삼남면, 삼동면 등 약 14만 명 인구를 관할하게 된다.

납세 인원은 약 4만 8000명으로 예상하며, 약 3000억원 세수가 예상된다.

기존 동울산세무서는 울주군을 제외한 기존 중구, 동구, 북구 지역을 관할한다.

(울산) 정종우 기자(jjw@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울산시,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의장 단체' 수임

울산시, 2022 실무위원회·2023년 총회 각각 개최

울산=장지승 기자 2021-08-10 15:00:00 사회일반



울산시는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의 의장을 맡아 앞으로 2년간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국제교류와 협력을 이끌어 나간다. /사진=울산시

울산시는 10일 오후 동북아 5개국 73개 지자체의 시도지사 등이 참가한 가운데 러시아 사하공화국 주관으로 개최된 '제13차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온라인 총회'에서 울산시의 제14대 의장단체 수임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2022년 실무위원회와 2023년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광범위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동북아시아지방정부가 세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미래 경쟁력을 선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은 1996년 한·중·일·러 광역지자체(현재 동북아 6개국 79개 광역지자체)가 참가해 창설한 동북아 지방정부 간 다자 교류 플랫폼으로 '동북아 지방정부 간 유엔'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울산매일

HOME 사회

울산시, 제14대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의장 단체' 수임

10일 온라인 총회에서 만장일치 승인...시, 2023년 총회 개최

조혜정

승인 2021.08.10 19:54



▲ 10일 동북아 5개국 73개 지자체 시·도지사 등 대표자가 참가한 가운데 열린 '제13차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 NEAR) 온라인 총회'에서 울산시가 제14대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의장단체로 선출된 가운데 송철호 울산시장의 수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우성만 기자

울산시가 '동북아 지방정부 간 UN'으로 불리는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의 의장 단체를 맡아 앞으로 2년간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국제교류와 협력을 이끌어 나가게 됐다.

10일 제13대 의장단체인 러시아 사하공화국은 '제13차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온라인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동북아 5개국 73개 지자체 시·도지사 등 대표자가 참가한 가운데 울산시에 대한 제14대 의장단체 수임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로써 울산시는 제14대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의장단체를 맡아, 2022년 실무위원회와 2023년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의장단체를 수행함으로써 향후 울산의 도시브랜드 위상 제고 및 경제·통상, 교육·과학,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 동반 성장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의장단체 수락 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산업수도

로서 울산시를 소개하고 “광범위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동북아시아지방정부가 글로벌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미래 경쟁력을 선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은 1996년 한·중·일·러 4개국 29개 광역지자체(현재 회원 동북아 6개국 79개 광역지자체)가 참가해 창설한 동북아 지방정부 간 다자 교류 플랫폼으로 ‘동북아 지방정부 간 UN’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직은 총회(의장), 실무위원회(위원장), 분과위원회(17개), 사무국(사무총장 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청소년 그림·포스터 공모전이 지난 4월부터 진행 중에 있으며, 역대 공모전 수상작이 9월 7일부터 17일까지 울산 도서관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 문의



조혜정

jhj74@iusm.co.kr

웹출판 : 2021-08-10 19:54 강정원 기자

입력·편집 : 2021-08-10 17:10 조혜정 기자

울산제일일보

HOME > 종합

울산, 동북아 지방정부 교류·협력 이끈다

윤 이상길 | 승인 2021.08.10 23:04

| 지역자치단체연합 14대 의장 맡아... "미래 경쟁력 선점 방안 모색"



송철호 울산시장이 10일 동북아 5개국 73개 지자체의 시도지사 등이 참가한 가운데 제13대 의장단체인 러시아 사하공화국 주관으로 개최된 '제13차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온라인 총회'에서 울산시의 제14대 의장단체 수임에 따른 인사말을 하고 있다.

울산시가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의 의장을 맡아 앞으로 2년간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국제교류와 협력을 이끌어 나간다.

울산시에 따르면 10일, 동북아 5개국 73개 지자체의 시도지사 등 대표자가 참가한 가운데 제13대 의장단체인 러시아 사하공화국 주관으로 '제13차 동

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온라인 총회'가 개최됐다.

이날 총회에서 울산시가 만장일치로 제14대 의장단체에 수임됐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제14대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의장단체를 맡아, 내년에 실무위원회와 2023년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의장단체를 수행함으로써 향후 울산의 도시브랜드 위상 제고 및 경제·통상, 교육·과학,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 동반 성장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의장단체 수락 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산업수도로서 울산시를 소개하고 "광범위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동북아시아지방정부가 세계(글로벌)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미래 경쟁력을 선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사무국 김옥채 사무총장은 "울산시가 의장을 수임함으로써 6개국 회원단체에 울산의 매력을 효율적으로 알릴 수 있게 됨은 물론, 시가 중점 추진 중인 북방경제협력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은 1996년 한·중·일·러 4개국 29개 광역지자체(현재 회원 동북아 6개국 79개 광역지자체)가 참가해 창설한 동북아 지방정부 간 다자 교류 플랫폼으로 '동북아 지방정부 간 유엔'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직은 총회(의장), 실무위원회(위원장), 분과위원회(17개), 사무국(사무총장 등)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청소년 그림·포스터 공모전이 지난 4월부터 진행 중에 있으며, 역대 공모전 수상작이 다음달 7일부터 17일까지 울산 도서관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이상길 기자

저작권자 © 울산제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상길

울산저널*i*

HOME > 뉴스 > 사회

울산시, 동북아시아자치단체 리더 역할 수행

김선유 기자 / 기사작성 : 2021-08-10 19:02:28

10일 총회(온라인)에서 회원단체 만장일치 승인 2022 실무위원회, 2023년 총회 각각 개최 예정

[울산저널]김선유 기자= 울산시가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 NEAR)의 의장을 맡아 앞으로 2년 간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국제교류와 협력을 이끌어 나간다.

울산시에 따르면 8월 10일 오후 3시 동북아 5개국 73개 지자체의 시도지사 등 대표자가 참가한 가운데 제13대 의장단체인 러시아 사하공화국 주관으로 개최된 ‘제13차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온라인 총회’에서 울산시의 제14대 의장단체 수임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제14대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의장단체를 맡아 2022년 실무위원회와 2023년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시는 의장단체를 수행함으로써 향후 울산의 도시 브랜드 위상 제고 및 경제·통상, 교육·과학,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 동반 성장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의장단체 수락 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산업수도로서 울산시를 소개하고 “광범위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동북아시아지방정부가 세계(글로벌)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미래 경쟁력을 선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사무국 김옥채 사무총장은 “울산시가 의장을 수임함으로써 6개국 회원단체에 울산의 매력을 효율적으로 알릴 수 있게 됨은 물론, 시가 중점 추진 중인 북방경제협력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은 1996년 한·중·일·러 4개국 29개 광역지자체(현재 회원 동북아 6개국 79개 광역지자체)가 참가해 창설한 동북아 지방정부 간 다자 교류 플랫폼으로, ‘동북아 지방정부 간 유엔’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직은 총회(의장), 실무위원회(위원장), 분과위원회(17개), 사무국(사무총장 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청소년 그림·포스터 공모전이 지난 4월부터 진행 중에 있으며 역대 공모전 수상작이 9월 7일부터 17일까지 울산 도서관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울산저널i.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http://www.usjournal.kr>]

울산시, 제14대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의장 단체 맡아

송고시간 2021-08-10 15:00

2년간 동북아 지방정부간 교류·협력...송철호 "미래 경쟁력 방안 모색"



울산시청

[울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가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의 의장을 맡아 2년간 동북아 지방 정부 간 교류와 협력을 이끌게 됐다.

10일 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동북아 5개국 73개 지자체의 시도지사 등 대표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13대 의장 단체인 러시아 사하공화국 주관으로 열린 '제13차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온라인 총회'에서 울산시의 제14대 의장 단체 수임이 승인됐다.

이에 따라 시는 제14대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의장 단체로서 2022년 실무위원회와 2023년 총회를 개최한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의장 단체 수락 연설에서 "광범위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동북아시아 지방정부가 세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미래 경쟁력을 선점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옥채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사무총장은 "울산시가 의장을 수임함으로써 울산의 매력을 효율적으로 알릴 수 있게 됐다"며 "시가 추진 중인 북방경제협력에서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은 1996년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4개국 29개 광역지자체가 참가해 창설한 동북아시아 지방정부 간 다자 교류 플랫폼이다.

현재 6개국 79개 광역지자체가 회원으로 참가하고 있다.

조직은 총회, 실무위원회, 분과위원회, 사무국 등으로 구성돼 있다.

yongta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8/10 15:00 송고

본 기사는 연합뉴스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

Copyright (C) Yonhapnews. All rights reserved.



HOME > 전국 > 부산경남취재본부

제14대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울산시 ‘의장 단체’ 수임

☎ 박흥식기자 Ⓢ 승인 2021.08.10 15:25

오늘(10일) 총회(온라인)에서 회원단체 만장일치 승인
울산시, 2022 실무위원회, 2023년 총회 각각 개최... 동북아시아자치단체 리더 역할 수행



[사진=울산시]

[이뉴스투데이 부산경남취재본부 박홍식 기자] 울산시가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 연합(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 NEAR)의 의장을 맡아 앞으로 2년간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국제교류와 협력을 이끌어 나간다.

울산시에 따르면 8월 10일 오후 3시 동북아 5개국 73개 지자체의 시도지사 등 대표자가 참가한 가운데 제13대 의장단체인 러시아 사하공화국 주관으로 개최된 '제13차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온라인 총회'에서 울산시의 제14대 의장단체 수임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제14대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의장단체를 맡아, 2022년 실무위원회와 2023년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의장단체를 수행함으로써 향후 울산의 도시브랜드 위상 제고 및 경제·통상, 교육·과학,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 동반 성장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의장단체 수락 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산업수도로서 울산시를 소개하고, “광범위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동북아시아지방정부가 세계(글로벌)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미래 경쟁력을 선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사무국 김옥채 사무총장은 “울산시가 의장을 수임함으로써 6개국 회원단체에 울산의 매력을 효율적으로 알릴 수 있게 됨은 물론, 시가 중점 추진 중인 북방경제협력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망했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은 1996년 한·중·일·러 4개국 29개 광역지자체(현재 회원 동북아 6개국 79개 광역지자체)가 참가하여 창설한 동북아 지방정부 간 다자 교류 플랫폼으로, ‘동북아 지방정부 간 유엔’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직은 총회(의장), 실무위원회(위원장), 분과위원회(17개), 사무국(사무총장 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청소년 그림·포스터 공모전이 지난 4월부터 진행 중에 있으며, 역대 공모전 수상작이 9월 7일부터 17일까지 울산 도서관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홍식 기자

제14대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울산시'의장 단체'수임

오늘(10일) 총회(온라인)에서 회원단체 만장일치 승인
울산시, 2022 실무위원회, 2023년 총회 각각 개최
동북아시아자치단체 리더 역할 수행

최아름 기자 hbs7733@daum.net

등록 2021.08.10 22:30

[더코리아-울산] 울산시가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 NEAR)의 의장을 맡아 앞으로 2년간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국제교류와 협력을 이끌어 나간다.

울산시에 따르면 8월 10일 오후 3시 동북아 5개국 73개 지자체의 시도지사 등 대표자가 참가한 가운데 제13대 의장단체인 러시아 사하공화국 주관으로 개최된 '제13차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온라인 총회'에서 울산시의 제14대 의장단체 수임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제14대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의장단체를 맡아, 2022년 실무위원회와 2023년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의장단체를 수행함으로써 향후 울산의 도시브랜드 위상 제고 및 경제·통상, 교육·과학,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 동반 성장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의장단체 수락 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산업수도로서 울산시를 소개하고, "광범위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동북아시아지방정부가 세계(글로벌)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미래 경쟁력을 선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사무국 김옥채 사무총장은 "울산시가 의장을 수임함으로써 6개국 회원단체에 울산의 매력을 효율적으로 알릴 수 있게 됨은 물론, 시가 중점 추진 중인 북방경제협력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망했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은 1996년 한·중·일·러 4개국 29개 광역지자체(현재 회원 동북아 6개국 79개 광역지자체)가 참가하여 창설한 동북아 지방정부 간 다자 교류 플랫폼으로, '동북아 지방정부 간 유엔'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직은 총회(의장), 실무위원회(위원장), 분과위원회(17개), 사무국(사무총장 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청소년 그림·포스터 공모전이 지난 4월부터 진행 중에 있으며, 역대 공모전 수상작이 9월 7일부터 17일까지 울산 도서관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울산 뉴스투데이

제14대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울산시 ‘의장 단체’수임

오늘(10일) 총회(온라인)에서 회원단체 만장일치 승인...동북아시아자치단체 리더 역할 수행

기사입력 2021.08.10 16:35:29 | 최종수정 2021.08.10 16:35:29 | 김솔 | in2link-today.com



[울산뉴스투데이 = 김솔 기자] 울산시가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 NEAR)의 의장을 맡아 앞으로 2년간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국제교류와 협력을 이끌어 나간다.

울산시에 따르면 8월 10일 오후 3시 동북아 5개국 73개 지자체의 시도지사 등 대표자가 참가한 가운데 제13대 의장단체인 러시아 사하공화국 주관으로 개최된 ‘제13차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온라인 총회’에서 울산시의 제14대 의장단체 수임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제14대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의장단체를 맡아, 2022년 실무위원회와 2023년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의장단체를 수행함으로써 향후 울산의 도시브랜드 위상 제고 및 경제·통상, 교육·과학,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 동반 성장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의장단체 수락 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산업수도로서 울산시를 소개하고, “광범위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동북아시아지방정부가 세계(글로벌)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미래 경쟁력을 선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사무국 김옥채 사무총장은 “울산시가 의장을 수임함으로써 6개국 회원단체에 울산의 매력을 효율적으로 알릴 수 있게 됨은 물론, 시가 중점 추진 중인 북방경제협력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망했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은 1996년 한·중·일·러 4개국 29개 광역지자체(현재 회원 동북아 6개국 79개 광역지자체)가 참가하여 창설한 동북아 지방정부 간 다자 교류 플랫폼으로, '동북아 지방정부 간 유엔'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직은 총회(의장), 실무위원회(위원장), 분과위원회(17개), 사무국(사무총장 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청소년 그림·포스터 공모전이 지난 4월부터 진행 중에 있으며, 역대 공모전 수상작이 9월 7일부터 17일까지 울산 도서관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김솔 (in@link-today.com)
Copyright@AMI systems Co., All Rights Reserved.

창닫기

동북아시아 5개국 72개 광역자치단체 한자리에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 제13차 총회 개최

[2021-08-10 오후 8:18:10]



경상북도는 8월 10일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5개국의 광역자치단체장 등 대표 7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3차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 총회를 개최했다.

2년마다 자치단체장 급이 참가해 개최되는 NEAR 총회는 올해 연합 사무국이 위치한 포항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이날 개막식에서 의장단체인 타라센코 안드레이 러시아 사하공화국 총리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의 축사, 반기문 전(前) 유엔사무총장과 미치가미 히사시 한중일 3국 협력 사무국(TCS: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사무총장의 외빈축사가 이어졌다.

이번 총회는 울산광역시의 차기 의장단체 선출과 중국 랴오닝성 회원가입(79번째) 신청 안건을 심의한 후 최근 해양어업, 환경, 방재,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 활동결과를 공유하고 동북아 지방정부가 당면한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으며 동북아의 미래 청사진을 담은 '선언문'을 발표했다.

총회를 준비한 김옥채 NEAR 사무총장은 "이번 회의에 지사급 33명이 참석함으로써 창립 후 25년을 이어온 NEAR 회원단체의 결속력을 보여줬으며, 이를 바탕으로 회원단체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NEAR 창설 25주년을 축하하며, 세계가 코로나-19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기후, 환경, 보건 등 인류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호 이해와 실질적 협력을 넓혀 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NEAR가 다자간 협력을 선도해서 공존과 번영의 동북아를 만들어 세계의 중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1996년 9월 경주 개최된 동북아시아 지역 자치단체 회의에서 창립된 NEAR는 현재 동북아 6개국 79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회원으로 가입해 다자간 국제교류와 협력을 추진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중앙 정부 간 대립과 갈등을 뛰어 넘어 지방정부 간 교류 확대를 통해 동북아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경북도,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 제13차 총회

- 동북아시아 5개국 72개 광역자치단체 한자리에 -

임양춘 기자 lyc8769@hanmail.net

등록 2021.08.10 16:25

[구미뉴스]=경상북도는 10일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5개국의 광역자치단체장 등 대표 7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3차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 총회를 개최했다.



2년마다 자체단체장 급이 참가해 개최되는 NEAR 총회는 올해 연합 사무국이 위치한 포항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이날 개막식에서 의장단체인 타라센코 안드레이 러시아 사하공화국 총리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의 축사, 반기문 전(前) 유엔사무총장과 미치가미 히사시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TCS: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사무총장의 외빈축사가 이어졌다.

이번 총회는 울산광역시의 차기 의장단체 선출과 중국 랴오닝성 회원가입(79번째) 신청 안건을 심의한 후 최근 해양어업, 환경, 방재,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 활동결과를 공유하고 동북아 지방정부가 당면한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으며 동북아의 미래 청사진을 담은 '선언문'을 발표했다.



총회를 준비한 **김옥채 NEAR 사무총장**은 "이번 회의에 지사급 33명이 참석함으로써 창립 후 25년을 이어온 NEAR 회원단체의 결속력을 보여줬으며, 이를 바탕으로 회원단체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NEAR 창설 25주년을 축하하며, 세계가 코로나-19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기후, 환경, 보건 등 인류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호 이해와 실질적 협력을 넓혀 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NEAR가 다자간 협력을 선도해서 공존과 번영의 동북아를 만들어 세계의 중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1996년 9월 경주 개최된 동북아시아 지역 자치단체 회의에서 창립된 NEAR는 현재 동북아 6개국 79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회원으로 가입해 다자간 국제교류와 협력을 추진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중앙 정부 간 대립과 갈등을 뛰어 넘어 지방정부 간 교류 확대를 통해 동북아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제13차 NEAR 총회 선언문

사하 선언문(안)

2021년 8월 10일 NEAR 총회 역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행사로 개최된 제13차 총회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일본국, 대한민국, 몽골국, 러시아연방 등 5개국에서 00개 회원단체와 0개 옵저버 단체, 그리고 준회원 단체인 베트남 호찌민시 및 협력 기관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특히,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이 축사를 통해, 동북아의 공동 번영과 평화에 공헌할 수 있는 다자간 협력의 플랫폼으로서 NEAR의 역할을 평가해 줌으로써, 지방정부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 동북아의

평화를 선도하겠다는 NEAR의 창설 이념이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받고 있음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

우리는 "함께 걸어온 25년, 앞으로 나아갈 동북아의 미래"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총회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중단된 회원단체 간의 교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면서, 지난 25년간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풍요롭고 평화로운 동북아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四半世紀를 시작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 우리는 호혜와 평등의 정신에 기초하여 동북아 지역의 공동발전과 평화에 공헌하고자 한 창설 초기의 정신을 다시 상기한다.
- 우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제한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회원단체 간 교류 및 협력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NEAR를 중심으로 단결한다.
- 우리는 기후변화, 환경문제, 전염병 확산 등 글로벌 이슈에 공동대응을 위해 협력하면서 서로의 경험과 사례를 공유한다.
- 우리는 NEAR가 동북아 지방정부 간 "UN"과 같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위상 강화와 회원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그리고 본 총회에서는 연합의 발전을 위해 상정된 의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다.

총회는 2023년에 열리는 제14차 총회를 2년 임기의 의장단체를 맡는 한국 울산광역시에서 개최하기로 만장일치로 합의하였다.

총회는 신규회원으로 중국 랴오닝성의 가입을 만장일치로 승인하였다.

이상의 선언 및 의결 사항에 대해 NEAR 회원단체들은 상호 협력을 통해 최선을 다해 이행할 것을 결의한다.

2021년 8월 10일

제13차 NEAR 총회 참가단체 대표 일동



뉴스룸 오피니언 인사이트 시민참여 회사소개 독자(후원)가입 기사제보 전국네트워크



경북 코로나19 확진자 67명(국내 66, 해외 1) 발생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 제13차 총회 개최



경북도 행정부지사, 태풍 대비 긴급 현장점검



경북도, 롯데GRS와 손잡고 지역 농특산물 판로 넓힌다

뉴스룸 > 경북도정뉴스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 제13차 총회 개최 동북아시아 5개국 72개 광역자치단체 한자리에

기사입력 2021-08-10 16:25

복사 목록 인쇄

경상북도는 10일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5개국의 광역자치단체장 등 대표 7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3차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 총회를 개최했다.



2년마다 자체단체장 급이 참가해 개최되는 NEAR 총회는 올해 연합 사무국이 위치한 포항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이날 개막식에서 의장단체인 타라센코 안드레이 러시아 사하공화국 총리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의 축사, 반기문 전(前) 유엔사무총장과 미치카미 히사시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TCS: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사무총장의 외빈축사가 이어졌다.

최근 많이 본 기사

1 경상북도 부단체장 및 실국장 인사



2 경북도, 전 시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행



3 경북도, 727(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정



4 경상북도 7월 19일자 486명 인사이동



5 경상북도 5급 이하 166명 승진 인사 의결



"세상을 바꿉니다"
사건, 사고, 미담 등 기사제보해 주세요.
기사제보 054) 452-8030 온라인제보

베스트기사

[영화&미디어] (신간) 이지원의 등대기행

[경북도정뉴스] 경북 코로나19 확진자 48명(국내 46,...

[기업체소식] 대우건설, '구미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1...

[경북도정뉴스] 경상북도 전국 최초 학생들에게 여...

[경북도정뉴스] 경북 코로나19 확진자 59명(국내 57,...

[경북도정뉴스] 경북 코로나19 확진자 31명(국내 27,...

[인물동정]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올 여름 휴가는...

[경북도정뉴스] 경북 코로나19 확진자 56명(국내 52,...

[경북도정뉴스] 경북 코로나19 확진자 67명(국내 66,...

[정치국회뉴스] 국민의힘 최재형 대선 예비후보

Hot 포토이슈

2 / 2



협약서 경북북청자연인물자연생태
공공관람 및 사회복지시설 방문



이철우 도지사, 비대면으로 시·군
새마을회장들과 소통



나눔리더 김재상 구미시의회의장

이번 총회는 울산광역시의 차기 의장단체 선출과 중국 랴오닝성 회원가입(79번째) 신청 안건을 심의한 후 최근 해양어업, 환경, 방재,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 활동결과를 공유하고 동북아 지방정부가 당면한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으며 동북아의 미래 청사진을 담은 '선언문'을 발표했다.

총회를 준비한 김옥채 NEAR 사무총장은 "이번 회의에 지사급 33명이 참석함으로써 창립 후 25년을 이어온 NEAR 회원단체의 결속력을 보여줬으며, 이를 바탕으로 회원단체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NEAR 창설 25주년을 축하하며, 세계가 코로나-19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기후, 환경, 보건 등 인류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호 이해와 실질적 협력을 넓혀 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NEAR가 다자간 협력을 선도해서 공존과 번영의 동북아를 만들어 세계의 중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1996년 9월 경주 개최된 동북아시아 지역 자치단체 회의에서 창립된 NEAR는 현재 동북아 6개국 79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회원으로 가입해 다자간 국제교류와 협력을 추진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중앙 정부 간 대립과 갈등을 뛰어 넘어 지방정부 간 교류 확대를 통해 동북아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최현영/기자 (gbinews9472@hanmail.net)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십니까?

기사후원하기 >

구독신청하기 >

여러분의 후원이 경북인터넷뉴스의
가장 큰 힘입니다!

경북인터넷뉴스 후원하기 >

후원/행사취재요청

☎ 054-452-8030

iNEWS 경북도정뉴스 관련기사

경북도친환경농업과, 조기집행 평가 최우수 부서

"독도를 휘날리며~"경북도 독도깃발 공모

김관용 도지사, 태풍'할루'피해 최소화 강력지시

경북도 올해는 김장 더 담그고, 김치 함께 나눠 먹어요

경상북도,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 제13차 총회 개최

기사입력시간 : 2021/08/10 [15:35:16]

이성현 기자

2년마다 자체단체장 급이 참가해 개최되는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총회가 올해 연합 사무국이 위치한 포항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10일 경상북도는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5개국의 광역자치단체장 등 대표 7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3차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북도에 따르면 이날 개막식에서 의장단체인 타라센코 안드레이 러시아 사하공화국 총리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의 축사, 반기문 전(前) 유엔사무총장과 미치가미 히사시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TCS: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사무총장의 외빈축사가 이어졌다.

이번 총회는 울산광역시의 차기 의장단체 선출과 중국 랴오닝성 회원가입(79번째) 신청안을 심의한 후 최근 해양어업, 환경, 방재,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 활동결과를 공유하고 동북아 지방정부가 당면한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으며 동북아의 미래 청사진을 담은 '선언문'을 발표했다.

총회를 준비한 김옥채 NEAR 사무총장은 "이번 회의에 지사급 33명이 참석함으로써 창립 후 25년을 이어온 NEAR 회원단체의 결속력을 보여줬으며, 이를 바탕으로 회원단체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NEAR 창설 25주년을 축하하며, 세계가 코로나-19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기후, 환경, 보건 등 인류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호 이해와 실질적 협력을 넓혀 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NEAR가 다자간 협력을 선도해서 공존과 번영의 동북아를 만들어 세계의 중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1996년 9월 경주 개최된 동북아시아 지역 자치단체 회의에서 창립된 NEAR는 현재 동북아 6개국 79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회원으로 가입해 다자간 국제교류와 협력을 추진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중앙 정부 간 대립과 갈등을 뛰어 넘어 지방정부 간 교류 확대를 통해 동북아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아래는 구글번역기로 번역한 기사 전문이다.>

<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yeongsangbuk-do hosts the 13th General Assembly of the Association of Northeast Asian Local Governments (NEAR)

The Association of NorthEastAsiaRegionalGovernments (NEAR) General Assembly, held every two years with the participation of the head of its own organization, was held online this year in Pohang, where the association's secretariat is located.

On the 10th, Gyeongsangbuk-do announced that it held the 13th General Assembly of the Federation of Northeast Asian Regional Governments in the presence of 72 representatives, including heads of regional governments from five countries, Korea, China, Japan, Mongolia and Russia.

According to Gyeongsangbuk-do, the opening ceremony began with a welcome speech by Prime Minister Tarasenko Andrei of the Sakha Republic of Russia, the chairperson, followed by congratulatory remarks by Cheol-woo Lee of Gyeongsangbuk-do, former UN Secretary-General Ban Ki-moon and Hisashi Michigami of the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TCS). The foreign guest congratulatory remarks by the Secretary-General followed.

After deliberation on the election of the next chairperson of Ulsan Metropolitan City and the application for membership in Liaoning Province, China (79th), the general meeting shared the recent activities of the subcommittee on marine fisheries, environment, disaster prevention, and economic and humanities exchanges. They exchanged in

-depth opinions on the task and released a 'manifesto' containing a blueprint for the future of Northeast Asia.

Kim Ok-chae, secretary general of NEAR, who prepared the general meeting, said, "The attendance of 33 branch-level members at this meeting showed the solidarity of NEAR member groups that have been in existence for 25 years since its foundation, and based on this, we will strive for active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of member groups." .

Gyeongsangbuk-do Governor Lee Cheol-woo said, "Congratulating the 25th anniversary of the founding of NEAR, it is important to expand mutual understanding and practical cooperation to solve common human problems such as climate, environment, and health even when the world is experiencing many difficulties due to COVID-19. It is important," he said. "I hope that NEAR will lead multilateral cooperation and become the center of the world by creating Northeast Asia of coexistence and prosperity."

Meanwhile, NEAR, founded in September 1996 at the Northeast Asian regional government meeting held in Gyeongju, is currently serving as a platform for multilateral international exchange and cooperation with 79 regional governments from 6 countries in Northeast Asia joining as members. Beyond the confrontation and conflict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s, it is promoting the common development of Northeast Asia by expanding exchanges between local governments.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https://www.breaknews.com/newnews/print.php?uid=826119)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제13차 총회...포항 사무국 서 온라인 개최

☞ 최만수 기자 ⌚ 승인 2021.08.10 17:36

동북아시아 5개국 72개 광역자치단체 한자리...동북아 청사진 담은 선언
문 발표



10일 온라인으로 열린 제13차 NEAR 총회에서 이철우(왼쪽) 경북도지사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경북도)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경북도는 한국·중국·일본·몽골·러시아 5개국의 광역자치단체장 등 대표 72명이 참여한 제13차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총회를 10일 개최했다.

2년마다 자체단체장급이 참가해 개최하는 NEAR 총회는 올해 연합 사무국이 위치한 포항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이날 개막식에서 의장단체인 타라센코 안드레이 러시아 사하공화국 총리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축사,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과 미치가미 히사시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TCS) 사무총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총회는 울산광역시의 차기 의장단체 선출과 중국 랴오닝성 회원 가입(79번째) 신청 안건을 심의한 뒤, 최근 해양어업, 환경, 방재, 경제·인문교류 분과 위원회 활동 결과를 공유했다. 특히 동북아 지방정부가 당면한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으며, 동북아의 미래 청사진을 담은 '선언문'을 발표했다.

총회를 준비한 김옥채 NEAR 사무총장은 "이번 회의에 지사급 33명이 참석해 창립 후 25년을 이어온 NEAR 회원단체의 결속력을 보여줬다"며 "이를 바탕으로 회원단체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력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세계가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기후·환경·보건 등 인류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호 이해와 실질적 협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NEAR가 다자간 협력을 선도해 공존과 번영의 동북아를 만들어 세계의 중심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1996년 9월 경주 개최된 동북아시아 지역 자치단체 회의에서 창립된 NEAR는 현재 동북아 6개국 79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회원으로 가입해 다자간 국제교류와 협력을 추진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중앙 정부 간 대립과 갈등을 뛰어 넘은 지방정부 간 교류 확대를 통해 동북아 공동 발전을 목표로 삼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만수 기자

[HOME](#) > 전국

포항에서 온라인으로 동북아시아 5개국 72개 광역자치단체 한자리에

✎ 김종렬 기자 | ☎ 승인 2021.08.10 16:57

경북도는 오늘(10일)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5개국의 광역자치단체장 등 대표 7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3차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 연합(NEAR)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2년마다 자체단체장 급이 참가해 개최되는 NEAR 총회는 올해 연합 사무국이 위치한 포항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개막식에서 의장단체인 타라센코 안드레이 러시아 사하공화국 총리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축사,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과 미치가미 히사시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TCS) 사무총장의 외빈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총회는 울산시의 차기 의장단체 선출과 중국 랴오닝성 회원가입(79번째) 신청 안건을 심의한 후 최근 해양어업, 환경, 방재,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 활동결과를 공유하고 동북아 지방정부가 당면한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또 동북아의 미래 청사진을 담은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총회를 준비한 김옥채 NEAR 사무총장은 “이번 회의에 지사급 33명이 참석함으로써 창립 후 25년을 이어온 NEAR 회원단체의 결속력을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NEAR 창설 25주년을 축하하며, 세계가 코로나19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기후, 환경, 보건 등 인류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호 이해와 실질적 협력을 넓혀 가는 것이 중요하다” 며 “NEAR가 다자간 협력을 선도해서 공존과 번영의 동북아를 만들어 세계의 중심이 되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습니다.

한편, 1996년 9월 경주 개최된 동북아시아 지역 자치단체 회의에서 창립된 NEAR는 현재 동북아 6개국 79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회원으로 가입해 다자간 국제교류와 협력을 추진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 동북아시아 5개국 72개 광역자치단체 한 자리에

윤 서덕수 기자 승인 2021.08.10 17:16

|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 제13차 총회 개최



경상북도청

[경남에나뉴스 서덕수 기자] 경상북도는 10일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5개국의 광역자치단체장 등 대표 7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3차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NEAR:AssociationofNorthEastAsiaRegionalGovernments) 총회를 개최했다.

2년마다 자체단체장 급이 참가해 개최되는 NEAR 총회는 올해 연합 사무국이 위치한 포항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이날 개막식에서 의장단체인 타라센코 안드레이 러시아 사하공화국 총리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의 축사, 반기문 전(前) 유엔사무총장과 미치가미 히사시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TCS: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사무총장의 외빈축사가 이어졌다.

이번 총회는 울산광역시의 차기 의장단체 선출과 중국 랴오닝성 회원가입(79번째) 신청 안건을 심의한 후 최근 해양어업, 환경, 방재,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 활동결과를 공유하고 동북아 지방정부가 당면한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으며 동북아의 미래 청사진을 담은 '선언문'을 발표했다.

총회를 준비한 김옥채 NEAR 사무총장은 "이번 회의에 지사급 33명이 참석함으로써 창립 후 25년을 이어온 NEAR 회원단체의 결속력을 보여줬으며, 이를 바탕으로 회원단체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NEAR 창설 25주년을 축하하며, 세계가 코로나-19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기후, 환경, 보건 등 인류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호 이해와 실질적 협력을 넓혀 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NEAR가 다자간 협력을 선도해서 공존과 번영의 동북아를 만들어 세계의 중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1996년 9월 경주 개최된 동북아시아 지역 자치단체 회의에서 창립된 NEAR는 현재 동북아 6개국 79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회원으로 가입해 다자간 국제교류와 협력을 추진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중앙 정부 간 대립과 갈등을 뛰어 넘어 지방정부 간 교류 확대를 통해 동북아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저작권자 © 경남에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덕수 기자

경북도, 동북아시아 5개국 72개 광역자치단체 한자리에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 제13차 총회 개최

기사입력시간 : 2021/08/10 [15:37:00]

김연실 기자



경상북도청

[케이에스피뉴스=김연실 기자] 경상북도는 10일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5개국의 광역자치단체장 등 대표 7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3차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 총회를 개최했다.

2년마다 자체단체장 급이 참가해 개최되는 NEAR 총회는 올해 연합 사무국이 위치한 포항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이날 개막식에서 의장단체인 타라센코 안드레이 러시아 사하공화국 총리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의 축사, 반기문 전(前) 유엔사무총장과 미치가미 히사시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TC S: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사무총장의 외빈축사가 이어졌다.

이번 총회는 울산광역시의 차기 의장단체 선출과 중국 랴오닝성 회원가입(79번째) 신청 안건을 심의한 후 최근 해양어업, 환경, 방재,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 활동결과를 공유하고 동북아 지방정부

가 당면한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으며 동북아의 미래 청사진을 담은 '선언문'을 발표했다.

총회를 준비한 김옥채 NEAR 사무총장은 “이번 회의에 지사급 33명이 참석함으로써 창립 후 25년을 이어온 NEAR 회원단체의 결속력을 보여줬으며, 이를 바탕으로 회원단체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NEAR 창설 25주년을 축하하며, 세계가 코로나-19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기후, 환경, 보건 등 인류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호 이해와 실질적 협력을 넓혀 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NEAR가 다자간 협력을 선도해서 공존과 번영의 동북아를 만들어 세계의 중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1996년 9월 경주 개최된 동북아시아 지역 자치단체 회의에서 창립된 NEAR는 현재 동북아 6개국 79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회원으로 가입해 다자간 국제교류와 협력을 추진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중앙 정부 간 대립과 갈등을 뛰어 넘어 지방정부 간 교류 확대를 통해 동북아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경상북도, 동북아시아 5개국 72개 광역자치단체 한자리에

-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 제13차 총회 개최 -

2021년 08월 10일 [cbn뉴스]



↑↑ NEAR총회

© cbn뉴스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상북도는 10일 2년마다 자체단체장 급이 참가해 개최되는 제13차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 총회를 개최했다.

NEAR 총회는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5개국의 광역자치단체장 등 대표 72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연합 사무국이 위치한 포항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이날 개막식에서 의장단체인 타라센코 안드레이 러시아 사하공화국 총리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의 축사, 반기문 전(前) 유엔사무총장과 미치가미 히사시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TCS: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사무총장의 외빈축사가 이어졌다.

이번 총회는 울산광역시의 차기 의장단체 선출과 중국 랴오닝성 회원가입(79번째) 신청 안건을 심의한 후 최근 해양어업, 환경, 방재,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 활동결과를 공유하고 동북아 지방정부가 당면한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으며 동북아의 미래 청사진을 담은 '선언문'을 발표했다.

총회를 준비한 김옥채 NEAR 사무총장은 “이번 회의에 지사급 33명이 참석함으로써 창립 후 25년을 이어온 NEAR 회원단체의 결속력을 보여줬으며, 이를 바탕으로 회원단체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NEAR 창설 25주년을 축하하며, 세계가 코로나-19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기후, 환경, 보건 등 인류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호 이해와 실질적 협력을 넓혀 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NEAR가 다자간 협력을 선도해서 공존과 번영의 동북아를 만들어 세계의 중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1996년 9월 경주 개최된 동북아시아 지역 자치단체 회의에서 창립된 NEAR는 현재 동북아 6개국 79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회원으로 가입해 다자간 국제교류와 협력을 추진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중앙 정부 간 대립과 갈등을 뛰어 넘어 지방정부 간 교류 확대를 통해 동북아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재영 기자 youngl5566@naver.com

“”

— Copyrights ©cbn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bn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cbn뉴스

경상북도, 동북아시아 5개국 72개 광역 자치단체 한자리에

✎ 김진한 기자 | ☎ 승인 2021.08.10 18:01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 제13차 총회 개최



제13차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총회를 개최했다.

경상북도는 10일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5개국의 광역자치단체장 등 대표 7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3차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총회를 개최했다.

2년마다 자체단체장 급이 참가해 개최되는 NEAR 총회는 올해 연합 사무국이 위치한 포항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이날 개막식에서 의장단체인 타라센코 안드레이 러시아 사하공화국 총리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의 축사, 반기문 전(前) 유엔사무총장과 미치가미 히사시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사무총장의 외빈축사가 이어졌다.

이번 총회는 울산광역시의 차기 의장단체 선출과 중국 랴오닝성 회원가입(79번째) 신청 안건을 심의한 후 최근 해양어업, 환경, 방재,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 활동결과를 공유하고 동북아 지방정부가 당면한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으며 동북아의 미래 청사진을 담은 '선언문'을 발표했다.

총회를 준비한 김옥채 NEAR 사무총장은 "이번 회의에 지사급 33명이 참석함으로써 창립 후 25년을 이어온 NEAR 회원단체의 결속력을 보여줬으며, 이를 바탕으로 회원단체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NEAR 창설 25주년을 축하하며, 세계가 코로나-19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기후, 환경, 보건 등 인류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호 이해와 실질적 협력을 넓혀 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NEAR가 다자간 협력을 선도해서 공존과 번영의 동북아를 만들어 세계의 중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진한 기자 press@gbprimenews.com

저작권자 © 프라임경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동북아 리더된 울산시, NEAR 제14대 의장단체에 선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 2021.08.10 15:00 수정 : 2021.08.10 15:00
 10일 온라인 총회에서 회원 단체 만장일치 승인
 울산시 2022 실무위원회, 2023년 총회 개최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6개국 79개 광역지자체 참여.. '동북아 지방정부 간 유엔'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시장 송철호)가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 NEAR)의 의장을 맡아 앞으로 2년간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국제교류와 협력을 이끌어 나간다.

NEAR는 10일 오후 3시 동북아 5개국 73개 지자체의 시도지사 등 대표자가 참가한 가운데 제13차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온라인 총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울산시를 제14대 의장단체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제14대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의장단체를 맡아, 2022년 실무위원회와 2023년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의장단체를 수행함으로써 향후 울산의 도시브랜드 위상 제고 및 경제·통

상, 교육·과학,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 동반 성장의 기회가 확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의장단체 수락 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산업수도로서 울산시를 소개하고, 광범위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동북아시아지방정부가 세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 미래 경쟁력을 선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사무국 김옥채 사무총장은 "울산시가 의장을 수임함으로써 6개국 회원단체에 울산의 매력을 효율적으로 알릴 수 있게 됨은 물론, 시가 중점 추진 중인 북방경제협력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망했다.

'동북아 지방정부 간 유엔'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은 지난 1996년 한·중·일·러 4개국 29개 광역지자체로 출범했다. 현재는 몽골과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6개국 79개 광역지자체가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동북아 지방정부 간 다자 교류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아시아경제 기사 프린트하기 프린트하기

X

울산시 '동북아 지방정부 UN' 자치단체연합 의장에 올라

기사입력 2021.08.10 14:59 최종수정 2021.08.10 14:59

10일 온라인 총회서 회원단체 만장일치 승인

동북아 6개국 79개 광역단체 리더 역할 수행

총 회	실무위원회	분과위원회(코디네이터)
·제1차(1996. 09.), 경상북도	·제1차(1997. 08.), 경상북도	① 경제인문 (경상북도)
·제2차(1998. 10.), 토야마현	·제2차(1999. 07.), 토야마현	② 교육문화교류 (시마네현)
·제3차(2000. 09.), 효고현	·제3차(2001. 08.), 효고현	③ 환 경 (토야마현)
·제4차(2002. 09.), 하바루스크	·제4차(2004. 01.), 헤이룽장성	④ 방 재 (효고현)
·제5차(2004. 09.), 헤이룽장성	·제5차(2005. 11.), 부산광역시	⑤ 관 광 (하남성)
·제6차(2006. 09.), 부산광역시	·제6차(2007. 09.), 산둥성	⑥ 해양어업 (산둥성)
·제7차(2008. 09.), 산둥성	·제7차(2009. 09.), 경기도	⑦ 광물자원개발 (따가단주)
·제8차(2010. 10.), 경기도	·제8차(2011. 07.), 중국 닝샤	⑧ 에너지기후변화(산시성)
·제9차(2012. 07.), 중국 닝샤	·제9차(2013. 09.), 전라남도	⑨ 농업 (전라남도)
·제10차(2014.10.), 전라남도	·제10차(2015.10.), 이르쿠츠크주	⑩ 생명의료산업(충청북도)
·제11차(2016.09.), 이르쿠츠크주	·제11차(2017.10.), 중국후난성	⑪ 체육 (사하공화국)
·제12차(2018.10.), 중국 후난성	·제11차(2019.09.), 러시아 사하	⑫ 물류 (중국 헤이룽장성)
		⑬ 국제인재교류 (중국 지린성)
		⑭ 국제전자상거래 (중국 허난성)
		⑮ 혁신클러스터 (중국 후난성)
		⑯ 청정환경(러시아 크라스노야르스크 변경)
		⑰ 전통의약 (중국 쓰촨성)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개회 현황.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울산시가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 NEAR)의 의장을 맡아 2년간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국제교류와 협력을 이끈다.

울산시는 10일 오후 3시 동북아 5개국 73개 지자체의 시도지사 등 대표자가 참가한 가운데 제13대 의장단체인 러시아 사하공화국 주관으로 개최된 '제13차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온라인 총회'에서 울산시의 제14대 의장단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2022년 실무위원회와 2023년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의장단체를 수행하면서 향후 울산의 도시브랜드 위상을 높이고 경제·통상, 교육·과학,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 협력과 동반 성장 기회가 확대할 계획이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산업수도 울산을 소개하고, "광범위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동북아시아 지방정부가 글로벌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경쟁력을 선점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수락 연설을 통해 밝혔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사무국 김옥채 사무총장은 "울산시가 의장을 수임해 6개국 회원단체에 울산의 매력을 효율적으로 알릴 수 있게 됐고, 시가 중점 추진 중인 북방경제협력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은 1996년 한·중·일·러 4개국 29개 광역지자체(현재 회원 동북아 6개국 79개 광역지자체)가 참가해 창설한 동북아 지방정부 간 다자 교류 플랫폼으로 '동북아 지방정부 간 유엔'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청소년 그림·포스터 공모전이 지난 4월부터 진행 중이며, 역대 공모전 수상작이 9월 7일부터 17일까지 울산도서관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

프린트하기

울산시, 동북아시아자치단체 제14대 의장 맡아 리더 역할 수행

등록 2021-08-10 15:06:20



[안동=뉴스시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 대표단과 몽골 15개 주지사들이 지난 3일 몽골 울란바타르시의 한 호텔에서 신년 간담회를 열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경북도 제공) 2020.01.08

[울산=뉴스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 NEAR)의 의장을 맡아 앞으로 2년간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국제교류 및 협력을 이끈다고 10일 밝혔다.

울산은 이날 동북아 5개국 73개 지자체의 사·도지사 등 대표자가 참가한 가운데 열린 '제13차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온라인 총회'에서 제14대 의장단체로 승인됐다.

이에 따라 시는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의장단체를 맡아 2022년 실무위원회와 2023년 총회를 개최한다.

시는 이번 의장단체 수행으로 향후 울산의 도시브랜드 위상 향상과 경제·통상, 교육·과학,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 및 동반 성장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철호 시장은 의장단체 수락 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산업수도로서 울산시를 소개하고, "광범위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동북아시아지방정부가 세계(글로벌)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미래 경쟁력을 선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은 1996년 한·중·일·러 4개국 29개 광역지자체(현재 회원 동북아 6개국 79개 광역지자체)가 참가해 창설한 동북아 지방정부 간 다자 교류 플랫폼으로, '동북아 지방정부 간 유엔'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직은 총회(의장), 실무위원회(위원장), 분과위원회(17개), 사무국(사무총장 등)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청소년 그림·포스터 공모전이 지난 4월부터 진행 중이며, 역대 공모전 수상작이 9월 7일부터 17일까지 울산 도서관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14대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울산시 ‘의장 단체’ 수임

10일 총회(온라인)에서 회원단체 만장일치 승인 - 울산시, 2022 실무위원회, 2023년 총회 각각 개최, 동북아시아 자치단체 리더 역할 수행

기사입력 2021.08.10 15:46:39 | 최종수정 2021.08.10 15:46:39 | 한호수 | hantoso70@naver.com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 제공)

울산시가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 NEAR)의 의장을 맡아 앞으로 2년간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국제교류와 협력을 이끌어 나간다.

시에 따르면 10일 오후 동북아 5개국 73개 지자체 시도지사 등 대표자가 참가한 가운데 제13대 의장단체인 러시아 사하공화국 주관으로 개최된 ‘제13차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온라인 총회’에서 울산시의 제14대 의장단체 수임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제14대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의장단체를 맡아, 2022년 실무위원회와 2023년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의장단체를 수행함으로 향후 울산의 도시브랜드 위상 제고 및 경제·통상, 교육·과학,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 동반 성장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의장단체 수락 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산업수도로서 울산시를 소개하고, “광범위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동북아시아지방정부가 세계(글로벌)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미래 경쟁력을 선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사무국 김옥채 사무총장은 “울산시가 의장을 수임함으로써 6개국 회원단체에 울산의 매력을 효율적으로 알릴 수 있게 됨은 물론, 시가 중점 추진 중인 북방경제협력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은 1996년 한·중·일·러 4개국 29개 광역지자체(현재 회원 동북아 6개국 79개 광역지자체)가 참가해 창설한 동북아 지방정부 간 다자 교류 플랫폼으로, ‘동북아 지방정부 간 유엔’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직은 총회(의장), 실무위원회(위원장), 분과위원회(17개), 사무국(사무총장 등)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청소년 그림·포스터 공모전이 지난 4월부터 진행 중에 있으며, 역대 공모전 수상작이 9월 7일부터 17일까지 울산 도서관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한호수 (hanhoso7@naver.com)

© 2004~2020 Copyright by CNBNEWS. All rights reserved.

창닫기

인쇄하기

인쇄하기

인쇄하기

창닫기



HOME 문화·연예 역사·문화 경상북도

경상북도,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 제13차 총회 개최

동북아시아 5개국 72개 광역자치단체 한자리에

이연서 기자

승인 2021.08.10 16:31



▲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 제13차 총회 개최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이연서기자] 경상북도는 10일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5개국의 광역자치단체장 등 대표 7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3차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 총회를 개최했다.

2년마다 자치단체장 급이 참가해 개최되는 NEAR 총회는 올해 연합 사무국이 위치한 포항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이날 개막식에서 의장단체인 타라센코 안드레이 러시아 사하공화국 총리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의 축사, 반기문 전(前) 유엔사무총장과 미치가미 히사시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TCS: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사무총장의 외빈축사가 이어졌다.

이번 총회는 울산광역시의 차기 의장단체 선출과 중국 랴오닝성 회원가입(79번째) 신청 안건을 심의한 후 최근 해양어업, 환경, 방재,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 활동 결과를 공유하고 동북아 지방정부가 당면한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으며 동북아의 미래 청사진을 담은 '선언문'을 발표했다.

총회를 준비한 김옥채 NEAR 사무총장은 "이번 회의에 지사급 33명이 참석함으로써 창립 후 25년을 이어온 NEAR 회원단체의 결속력을 보여줬으며, 이를 바탕으로 회원단체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NEAR 창설 25주년을 축하하며, 세계가 코로나-19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기후, 환경, 보건 등 인류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호 이해와 실질적 협력을 넓혀 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NEAR가 다자간 협력을 선도해서 공존과 번영의 동북아를 만들어 세계의 중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1996년 9월 경주 개최된 동북아시아 지역 자치단체 회의에서 창립된 NEAR는 현재 동북아 6개국 79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회원으로 가입해 다자간 국제교류와 협력을 추진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중앙 정부 간 대립과 갈등을 뛰어 넘어 지방정부 간 교류 확대를 통해 동북아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연서 기자 ijj@ijj.co.kr

<저작권자 © 국제i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쇄하기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 NSP통신

경북도,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 제13차 총회 개최

2021-08-10 17:20, 조인호 기자 [XML:KR:1903:지자체/정당]

#경북도 #이철우도지사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광역자치단체장

동북아시아 5개국 72개 광역자치단체 한자리에



경상북도는 10일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5개국의 광역자치단체장 등 대표 7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3차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AssociationofNorthEastAsiaRegionalGovernments) 총회를 개최했다. (사진 = 경상북도)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경상북도는 10일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5개국의 광역자치단체장 등 대표 7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3차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AssociationofNorthEastAsiaRegionalGovernments) 총회를 개최했다.

2년마다 자치단체장 급이 참가해 개최되는 NEAR 총회는 올해 연합 사무국이 위치한 포

항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이날 개막식에서 의장단체인 타라센코 안드레이 러시아 사하공화국 총리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의 축사, 반기문 전(前) 유엔사무총장과 미치가미 히사시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TCS: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사무총장의 외빈축사가 이어졌다.

이번 총회는 울산광역시의 차기 의장단체 선출과 중국 랴오닝성 회원가입(79번째) 신청 안건을 심의한 후 최근 해양어업, 환경, 방재,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 활동결과를 공유하고 동북아 지방정부가 당면한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으며 동북아의 미래 청사진을 담은 '선언문'을 발표했다.

총회를 준비한 김옥채 NEAR 사무총장은 "이번 회의에 지사급 33명이 참석함으로써 창립 후 25년을 이어온 NEAR 회원단체의 결속력을 보여줬으며, 이를 바탕으로 회원단체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NEAR 창설 25주년을 축하하며, 세계가 코로나-19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기후, 환경, 보건 등 인류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호 이해와 실질적 협력을 넓혀 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NEAR가 다자간 협력을 선도해서 공존과 번영의 동북아를 만들어 세계의 중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1996년 9월 경주 개최된 동북아시아 지역 자치단체 회의에서 창립된 NEAR는 현재 동북아 6개국 79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회원으로 가입해 다자간 국제교류와 협력을 추진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중앙 정부 간 대립과 갈등을 뛰어 넘어 지방정부 간 교류 확대를 통해 동북아 공동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14대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울산시'의장 단체'수임

총회(온라인)에서 회원단체 만장일치 승인
울산시, 2022 실무위원회, 2023년 총회 각각 개최
동북아시아자치단체 리더 역할 수행

김기준 기자 tomorrow7507@naver.com

등록 2021.08.11 14:25:43



(대한뉴스김기준기자)=울산시가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 NEAR)의 의장을 맡아 앞으로 2년간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국제교류와 협력을 이끌어 나간다.

울산시에 따르면 8월 10일 오후 3시 동북아 5개국 73개 지자체의 시도지사 등 대표자가 참가한 가운데 제13대 의장단체인 러시아 사하공화국 주관으로 개최된 '제13차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온라인 총회'에서 울산시의 제14대 의장단체 수임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제14대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의장단체를 맡아, 2022년 실무위원회와 2023년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의장단체를 수행함으로써 향후 울산의 도시브랜드 위상 제고 및 경제·통상, 교육·과학,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 동반 성장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의장단체 수락 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산업수도로서 울산시를 소개하고, “광범위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동북아시아지방정부가 세계(글로벌)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미래 경쟁력을 선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사무국 김옥채 사무총장은 “울산시가 의장을 수임함으로써 6개국 회원단체에 울산의 매력을 효율적으로 알릴 수 있게 됨은 물론, 시가 중점 추진 중인 북방경제협력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망했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은 1996년 한·중·일·러 4개국 29개 광역지자체(현재 회원 동북아 6개국 79개 광역지자체)가 참가하여 창설한 동북아 지방정부 간 다자 교류 플랫폼으로, ‘동북아 지방정부 간 유엔’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직은 총회(의장), 실무위원회(위원장), 분과위원회(17개), 사무국(사무총장 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청소년 그림·포스터 공모전이 지난 4월부터 진행 중에 있으며, 역대 공모전 수상작이 9월 7일부터 17일까지 울산 도서관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울산] 울산, '동북아시아 지역자치단체연합' 의장 단체 맡아

2021년 08월 11일 09시 38분

울산시가 '동북아시아 지역자치단체연합'의 제14대 의장단체가 됐습니다.

울산시는 앞으로 2년간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등 6개국 79개 광역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지방 정부의 국제교류와 협력을 이끌게 됩니다.

울산시는 내년 실무위원회를 열어 오는 2023년 총회 개최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Copyrights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홈 > 뉴스 > 인터넷뉴스 > 정치행정

동북아시아 5개국 72개 광역자치단체 한자리에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 제13차 총회

2021년 08월 10일 (화) 16:52:51

김현식 보도국장 ✉ hskimhs@paran.com

경상북도는 10일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5개국의 광역자치단체장 등 대표 7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3차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NEAR:AssociationofNorthEastAsiaRegionalGovernments) 총회를 개최했다.



2년마다 자치단체장 급이 참가해 개최되는 NEAR 총회는 올해 연합 사무국이 위치한 포항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이날 개막식에서 의장단체인 타라센코 안드레이 러시아 사하공화국 총리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의 축사, 반기문 전(前) 유엔사무총장과 미치가미 히사시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TCS: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사무총장의 외빈축사가 이어졌다.

이번 총회는 울산광역시의 차기 의장단체 선출과 중국 랴오닝성 회원가입(79번째) 신청 안건을 심의한 후 최근 해양어업, 환경, 방재,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 활동결과를 공유하고 동북아 지방정부가 당면한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으며 동북아의 미래 청사진을 담은 '선언문'을 발표했다.

총회를 준비한 김옥채 NEAR 사무총장은 “이번 회의에 지사급 33명이 참석함으로써 창립 후 25년을 이어온 NEAR 회원단체의 결속력을 보여줬으며, 이를 바탕으로 회원단체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NEAR 창설 25주년을 축하하며, 세계가 코로나-19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기후, 환경, 보건 등 인류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호 이해와 실질적 협력을 넓혀 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NEAR가 다자간 협력을 선도해서 공존과 번영의 동북아를 만들어 세계의 중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1996년 9월 경주 개최된 동북아시아 지역 자치단체 회의에서 창립된 NEAR는 현재 동북아 6개국 79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회원으로 가입해 다자간 국제교류와 협력을 추진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중앙 정부 간 대립과 갈등을 뛰어 넘어 지방정부 간 교류 확대를 통해 동북아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사하 선언문(안)

2021년 8월 10일 NEAR 총회 역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행사로 개최된 제13차 총회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일본국, 대한민국, 몽골국, 러시아연방 등 5개국에서 00개 회원단체와 0개 옵저버 단체, 그리고 준회원 단체인 베트남 호찌민시 및 협력 기관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특히,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이 축사를 통해, 동북아의 공동 번영과 평화에 공헌할 수 있는 다자간 협력의 플랫폼으로서 NEAR의 역할을 평가해 줌으로써, 지방정부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 동북아의 평화를 선도하겠다는 NEAR의 창설 이념이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받고 있음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

우리는 “함께 걸어온 25년, 앞으로 나아갈 동북아의 미래”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총회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중단된 회원단체 간의 교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면서, 지난 25년간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풍요롭고 평화로운 동북아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四半世紀를 시작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 우리는 호혜와 평등의 정신에 기초하여 동북아 지역의 공동발전과 평화에 공헌하고자 한 창설 초기의 정신을 다시 상기한다.
- 우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제한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회원단체 간 교류 및 협력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NEAR를 중심으로 단결한다.
- 우리는 기후변화, 환경문제, 전염병 확산 등 글로벌 이슈에 공동대응을 위해 협력하면서 서로의 경험과 사례를 공유한다.

○ 우리는 NEAR가 동북아 지방정부 간 “UN”과 같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위상 강화와 회원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그리고 본 총회에서는 연합의 발전을 위해 상정된 의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다.

총회는 2023년에 열리는 제14차 총회를 2년 임기의 의장단체를 맡는 한국 울산광역시에서 개최하기로 만장일치로 합의하였다.

총회는 신규회원으로 중국 랴오닝성의 가입을 만장일치로 승인하였다.

이상의 선언 및 의결 사항에 대해 NEAR 회원단체들은 상호 협력을 통해 최선을 다해 이행할 것을 결의한다.

2021년 8월 10일

제13차 NEAR 총회 참가단체 대표 일동

© 김천방송(<http://www.gm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인쇄하기

 창닫기